

## 남당 한원진의 도론(道論) 연구\*

-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중용」을 중심으로 -

단 윤 진(성균관대학교)\*\*

### 한글요약

이 논문은 남당 한원진의 도론에 관한 연구이다. "남당이 창출한 독창적인 이론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곧 성삼층설(性三層說)이 도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남당의 도론의 특성을 고찰 한 것이다. 『중용』 제1장에서는 도의 개념을 '본성을 따르는 것[솔성(率性)]'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하여 주자가 '性を 따르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도]이 정립된다.'라고 주석한 것에 의거한다면, 성리학에서 도의 정립 근거는 바로 性이 된다. 그러므로 남당의 독창적인 성론에서부터 도출된 도론은 주자의 도론과 구별되는 내용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당은 『중용(中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은 바로 '도(道)'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남당이 보편과 특수,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대한 남당의 인식이 어떻게 인도(人道)와 물도(物道)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인간과 사물의 '기질을 인한[인기질(因氣質)] 본연지성'은 다르기 때문에 인도(人道)와 물도(物道)가 다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자와 구별되는 남당 학설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자의 주장은 '어떻게 동일한 본성에서부터 각각 다른 도가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남당의 도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의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 도, 솔성, 『중용』, 보편, 특수, 남당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5년도 립관현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1. 서 론

18세기 남당과 외암 논변의 핵심적 주제가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오상(五常))]'와 ‘미발(未發)’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1)</sup> 그리고 전자가 『맹자』 「고자」상편 <생지위성(生之謂性)>장과 『중용』 1장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대한 주자의 주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논변이 전개되며, 후자는 『중용』 1장의 “희노애락지미발위지중, 발이개중절위지화(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남당의 『중용』 해석에 대한 연구가 성론(性論)과 미발론(未發論)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중용』 첫 구절인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가운데에서, ‘성(性)’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도(道)’와 ‘교(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남당의 도론과 교론에 대하여 연구한 단독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다. 남당의 생애와 학문 전반을 서술하고 있는 이상곤의 『한원진: 18세기 기호유학을 이끈 호학의 일인자』(성대 출판부, 2009)에도 ‘도’와 ‘교’에 관한 항목은 없다. 이 논문은 남당의 도론(道論)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중용』의 구성체계<sup>2)</sup>에 있어서 ‘성(性)’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道)’이다. 이 점은 『중용장구대전』에 편집되어 있는 번양이씨(番陽李氏) 다음 주석에 잘 나타나 있다.

『중용』은 성(性)·도(道)·교(教) 이 세 마디 말이 일편의 강령이 되

1) 전인식, 「이간과 한원진의 미발·오상논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8, 9쪽.

2) 여기에서 ‘『중용』의 구성체계’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용』에 대한 주자학적 해석의 구성체계’이다.

고 ‘도(道)’자 하나가 이 세 마디 말의 강령이 된다. 도(道)는 성(性)에서 말미암아 나오니 도를 말하면서 성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의 본원이 무엇인지 몰라 더러 천근(淺近)한데서 찾기도 하며, 도(道)는 교(敎)에서 말미암아 밝혀지니 도를 말하면서 교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의 공용(功用)이 무엇인지 몰라 더러 고허(高虛)한데서 찾게 된다. 그러므로 성(性)을 도(道)보다 먼저 말하고 교(敎)를 도(道)보다 뒤에 말한 다음에 이어서 ‘도(道)라는 것은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sup>3)</sup>

신안진씨(新安陳氏)도 “‘도(道)’라는 글자는 위로 ‘성(性)’자는 글자를 포함하고 아래로 ‘교(敎)’라는 글자를 포함하니 그 본원을 추구하면 반드시 천명으로 돌아간다.”<sup>4)</sup>라고 하여 ‘도’가 ‘성’과 ‘교’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남당의 경전 해석은 기본적으로 주자의 여러 학설을 변정해 정설을 확정하고 이에 준거해 『대전(大全)』 본 소주 및 후대 제유들의 이설을 분변함으로써 주자의 경학(經學)을 명증하게 정리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중용장구대전』에서 그 위상을 높게 평가한 ‘도’에 관하여 남당 자신이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도’의 정립 근거인 ‘성’<sup>6)</sup>에 대하여 남당은 외암과의 치열한 논변을 통하여 독창적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곧 ‘성삼층설(性三層說)’을 창출한 바 있다.<sup>7)</sup> 그러므로 그의 독창적 성론이 도론에

- 3) 호광, 『中庸章句大全』第一章: 中庸一書, 性道教三言, 爲一篇之綱領, 而道之一字, 爲三言之綱領. 道由性而出, 言道而不言性, 則人不知道之本原, 而或索之於淺近, 道由教而明, 言道而不言教, 則人不知道之功用, 而或索之於高虛. 言性於道之先, 言教於道之後, 而下卽繼之曰: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 4) 같은 책: 道字, 上包性字, 下包教字; 推其本原, 必歸之天命.
- 5) 최석기, 「남당 韓元震의 『中庸』 해석 방법과 그 성과」, 『한문학보』 제16집, 우 리한문학회, 2007, 247쪽.
- 6) 주자는 “知事之有道, 而不知其由於性”(『중용장구』 제1장)라고 하여 ‘道’는 ‘性’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남당 경학사상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이 될 것이다.

남당의 『중용』에 대한 독립된 저술에는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 「중용」편과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중용」편이 있다. 그러나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 「중용」편은 주로 주자의 언설들이 편집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검토하려고하는 『중용』의 첫 구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중용」편을 중심으로 남당의 도론에 대하여 논의한다.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은 「대학(大學)」·「중용(中庸)」·「태극도(太極圖)」·「역학계몽(易學啓蒙)」·「부록(附錄)」 등 모두 6권으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중용(中庸)」편은 <도(圖)>, <총설(總說)>, <서문(序文)>, <편제(篇題)>, <요왕설변(饒王說辨)>, <소주(小註)>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圖)>와 <총설(總說)>에서 『중용(中庸)』 한 편의 체계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문(序文)>, <편제(篇題)>에서는 『중용(中庸)』에 대하여 주자(朱子)의 『중용장구(中庸章句)』에 따라 각 장을 세부적으로 주석하고, <요왕설변(饒王說辨)>과 <소주(小註)>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남당은 『중용(中庸)』에 대한 주해를 그림과 더불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그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 2.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중용(中庸)」의 구성체계에 있어 도(道)의 위상

7) 홍정근, 「호락논쟁에 관한 임성주의 비판적 지양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27쪽-30쪽.



남당은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중용(中庸)」 앞에 <중용도(中庸圖)>를 배치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용(中庸)』은 편(篇)과 장(章)이 넓고 크지만 의미는 정미(精微)하니, 넓은 것에서는 그 핵심을 깨닫기 어렵고 은미(隱微)한 것에서는 온축(蘊蓄)된 것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이 매양 심원(深遠)함에 탄식하고 벽에 가로 막힌 듯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에 감히 참람됨을 잊어버리고 이 도(圖)를 지어 책상 위에 두고서 늘 상 보니 33장의 설이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분명하여, 버리를 따라 목을 들어 거슬러 올라가 근원을 찾으면 거의 핵심을 깨닫고 온축된 것을 규명하는 공부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감히 남에게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애오라지 스스로 상고하려는 것일 뿐이다.<sup>8)</sup>

남당은 <중용도(中庸圖)>에서 각각의 절(節)과 장(章)에 그 의미를 새겨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중용(中庸)의 해석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중용도(中庸圖)>가 ‘주자(朱子)의 『장구(章句)』에 의거하여 찬정한 것’<sup>9)</sup>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자(朱子)는 『중용(中庸)』을 33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분절(分節) 방법에 대해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의 「독중용법(讀中庸法)」에서는 ‘6대절(六大節)’로 말하였고, 『중용장구(中庸章句)』 장하주(章下註)에서는 ‘4대절(四大節)’을 말하였다. 그러한 분절(分節) 방법은 조선(朝鮮) 성리학자(性理學者)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많은 조선 성리학자들은 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따랐지만 또 그

8)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圖> 2쪽: 大抵, 中庸一書, 篇章浩博, 指義精微, 博則難領其要, 微則難究其蘊. 是以讀者每有望洋之歎, 隔壁之憂也. 茲敢忘僭竊爲此圖, 置之案上而常目焉, 則三十三章之說爛然指掌, 因綱舉目, 沿流溯源, 庶幾有助於領要究蘊之術. 非敢示人聊以自考云爾.

9)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圖> 3쪽: 右中庸圖, 謹依朱子章句而撰定焉.

들은 각각 이 두 분절 방법을 종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분절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남당은 『경의기문록』에서 주자의 『중용장구』 장하주에 근거하여 『중용』을 4대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네 가지의 큰 절목으로써 상하좌우에 나누어 배치하여 그것의 강령으로 삼았고, 각 절에 포함된 여러 장을 절에 따라서 나누어 예속하여 그것의 목(目)으로 삼아, 그 가지마다 나뉘고 마디마디 풀었다는 뜻을 드러냈고, 또 가는 선으로 네 절을 네모지게 연결하여 그 혈맥이 관통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장구(章句)』는 성(誠)으로써 한편의 추뉴(樞紐)로 삼았기 때문에 성자를 가운데 배치하여 네 절을 통괄하게 했으며, 16장에서 신(神)을 ‘성의 가릴 수 없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자를 성자 아래에 연결하여 성(誠)의 용(用)으로 삼았는데, 자리의 배치와 명목은 모두 『장구(章句)』의 뜻을 상고하였다<sup>10)</sup>

4대절의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남당의 사분대절(四分大節)>

	단락구분	주제
제 1 대절	1장~11장	중용(中庸)
제 2 대절	12장~20장	비은(費隱)
제 3 대절	21장~32장	천도·인도(天道·人道)
제 4 대절	33장	일편지요(一篇之要)

10)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圖> 3쪽: 故以四大節分置上下左右, 以爲之綱, 而以各節所包諸章, 逐節分隸, 以爲之目, 以見其支分節解之義, 而又以細畫句連四節, 以見其血脈貫通之義. 章句以誠爲一篇之樞紐, 故置誠字於中, 以統四節, 十六章以神爲誠之不可掩者, 故又以神字系誠字下, 以爲誠之用, 位置名目, 蓋無不考乎『章句』之指也.

남당은 1대절에서 제목을 ‘중용’이라 붙이고 설명하고 있다. 맨 처음 1장에서는 중화(中和)를 말하였는데, 중용은 실지로는 중화의 뜻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장 이하의 열 장은 모두 실은 1장의 뜻을 밝혀 말한 것이다. 1장은 성, 도, 교를 말하고 있으며, 도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는 것, 계구(戒懼)와 신독(愼獨), 중화(中和)와 위육(位育) 등 중용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 1장의 뜻을 해석하여 밝힌 것으로 도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다. 주자 역시 중용의 중(中)은 중화를 겸하고, 중화의 중(中)은 도(道)의 체(體)이고 화(和)는 도(道)의 용(用)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중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중용은 도의 체용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또 주자는 ‘도는 천리의 당연함이니 중(中)일 뿐이다.’<sup>11)</sup>라고 말하며 중용은 도의 근원과 실현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수장(首章)에서는 중화(中和)를 말했는데, 『장구(章句)』에서 ‘이 아래 열 장(章)은 이 장의 뜻을 맺은 것이다.’<sup>12)</sup>고 하였다. 제2장은 화(和)를 바꾸어 용(庸)을 말한 것으로, 『장구』에서 ‘중용의 중(中)은 실지로 중화의 뜻을 겸하였다.’<sup>13)</sup>고 하고, ‘이 아래 열 장은 모두 중용을 논하여 수장의 뜻을 해석하였다.’<sup>14)</sup>고 하였다. 11장 『장구』에서는 ‘자사가 부자의 말을 인용하여 수장의 뜻을 밝힌 것이 여기에서 끝났다.’<sup>15)</sup>고 하였다. 따라서 수장에서 11장까지를 모두 제1의 큰 절목으로 삼고 ‘중용’으로 제목 하였다.<sup>16)</sup>

11) 朱熹, 『中庸章句』第 四章 ; 道者天理之當然, 中而已矣.

12) 朱熹, 『中庸章句』第 一章 ; 其下十章 …… 以結此章之義.

13) 朱熹, 『中庸章句』, 第 二章 ; 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

14) 朱熹, 『中庸章句』, 第 二章 ; 此下十章, 皆論中庸 以釋首章之義.

15) 朱熹, 『中庸章句』第 十一章: 子思所引夫子之言, 以明首章之義者, 止此.

16) 韓元震, 『經義記聞錄』卷 第二 「中庸」 <圖> 2쪽: 首章言中和, 而章句曰, 其下十章以終此章之義. 第二章變和言庸, 而章句曰 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 此下十章皆論中庸, 以釋首章之義. 十一章章句曰, 子思所引夫子之言, 以明首章之義者,

제2대절은 12장부터 20장까지인데 ‘비은(費隱)’이라 하고 있다. ‘비은(費隱)’은 中庸의 道가 지극히 넓고 지극히 은미(隱微)하여, ‘도는 떠날 수 없다’는 뜻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다. ‘비은절(費隱節)’은 16장 ‘귀신장(鬼神章)’을 중심으로 13, 14, 15장과 17, 18, 19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3장의 ‘도불원인(道不遠人) -’, 14장 ‘군자 소기위이행(君子素其位而行) -’, 15장 ‘군자지도(君子之道) -’ 까지 세 장은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일이며, 비(費)의 소(小)이다. 16장 귀신(鬼神)은 비은(費隱)을 겸하고, 대소(大小)를 겸하여 말하고 있다. 17장 ‘자왈순(子曰舜) -’, 18장 ‘자왈무우자(子曰無憂者) -’, 19장 ‘자왈무왕주공(子曰武王周公) -’의 세 장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일이며, 비(費)의 대(大)이다. 20장은 아래의 비은(費隱)을 포함하고 대소(大小)를 겸하여 12장의 뜻을 맺고 있다. 주자는 비은을 ‘비(費)는 용(用)의 넓음이고, 은(隱)은 체(體)의 은미함이다’<sup>17)</sup>라고 하여 비은을 체용관계로 설명한다. 또한 비은을 도의 체용 관계로도 설명하여 ‘도는 떠날 수 없는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12장에서는 비은(費隱)을 말했는데, 『장구』에서 “그 아래 여덟 장은 공자의 말을 뒤섞어 인용하여 밝힌 것이다.”고 하였고, 20장의 『장구』에서는 “비은을 포함하고 소대를 겸하여 12장의 뜻을 맺은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2장에서 20장까지를 모두 제2의 큰 절목으로 삼고 ‘비은’으로써 제목 하였다.<sup>18)</sup>

제3대절은 ‘천도’와 ‘인도’를 제목으로 21장부터 32장까지 말하였다. 도가 사람에게 체득되는 방법에 있어 천도와 인도의 나뉘어 있으며, 또한

止此。故自首章至十一章，共爲第一大節，而目之以中庸。

17) 朱熹, 『中庸章句』 第十二章: 費, 用之廣也, 隱, 體之微也。

18)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圖> 2쪽: 十二章言費隱, 而章句曰其下八章雜引孔子之言以明之, 二十章章句曰包費隱, 兼小大以終十二章之意。故自十二章至二十章, 共爲第二大節, 而目之以費隱。

도는 사람에게서 떠날 수 없음을 거듭 말하고 있다. 21장은 ‘성’과 ‘교’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자의 천도 인도의 뜻을 이어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하는 모두 그 뜻을 반복하여 미루어 밝힌 것이다. 22장 ‘유천하지성(惟天下至誠)’은 천도를 말하였고, 23장 ‘기차치곡(其次致曲)’은 인도를 말하였고, 24장 ‘지성지도(至誠之道)’는 천도를 말하였고, 25장 ‘성자자성야(誠者自成也)’는 인도를 말하였고, 26장 ‘고지성무식(故至誠無息)’은 천도를 말하였고, 27장 ‘대재성인지도(大哉聖人之道)’는 인도를 말하였고, 28장 ‘자왈우이호자용(子曰遇而好自用)’은 또한 인도를 말하였고, 29장 ‘왕천하(王天下)’는 역시 인도를 말하였고, 30장 ‘중니조술요순(仲尼祖述堯舜)’은 천도를 말하였고, 31장 ‘유천하지성(唯天下至聖)’은 또한 천도를 말하였고, 32장 ‘유천하지성(唯天下至誠)’은 이 또한 천도인데 성인이 천도의 극치를 다함을 말한 것이 이에 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道)과 인도는 ‘성(誠)은 천도(天道)이고 성지(誠之)는 인도(人道)이니, 성(誠)은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종용(從容)히 도에 맞으니 성인이고, 성지(誠之)는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다.’<sup>19)</sup>라는 의미이다. 즉 천도와 인도를 각각 도가 실현된 공효와 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1장은 성과 교를 말했는데, 『장구』에서 “자사가 윗 장의 부자의 천도, 인도의 뜻을 이어 말씀을 했다.”고 하고서, “이로부터 열두 장은 거듭하여 이 장의 뜻을 미루어 밝힌 것이다.”고 하였으며, 32장 『장구』에서는 “이 편은 성인이 천도의 극치를 말한 것이니 이에 이르면 더할 게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21장에서 32장까지를 모두 제3의 큰 절목으로 삼고 ‘천도’와 ‘인도’로 제목 하였다.<sup>20)</sup>

19) 『中庸』 第二十章: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20)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圖> 2~3쪽; 二十一章言性教, 而章句曰子思承上章夫子天道人道之意而立言, 此下十二章以反復推明此章之意, 三十二

제4대절은 마지막 33장으로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장이 아니라 『중용』 전체의 의미를 이 장에서 축약한 것이다. 『장구』에서는 “이 한 편의 요점을 들어 요약하여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장을 따로 제4의 큰 절목으로 삼고 <일편지요(一篇之要)>라 제목 하였다. 서문에서 “가지마다 나누고 마디마다 풀었다.”라고 한 것이 그러한 것이다.<sup>21)</sup>

이와 같이 남당은 『중용』을 4대절로 분절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편의 글은 모두 이어져 그 맥락이 관통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분절해(支分節解)’는 『중용』 한 책을 네 개의 큰 절로 나누고, 또 33장으로 나누고, 일장을 또 몇 단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맥락 관통(脈絡貫通)’은 편의 실마리가 편의 종장에 이르러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의 뜻이 모두 서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니, 상략(詳略)과 거세(巨細)도 역시 이와 같이 미루어야 한다.<sup>22)</sup>

그리고 『중용』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은 바로 ‘도(道)’라고 주장한다.

제1의 대절에 중용을 말한 것은 도의 중용이고, 제2의 대절에 비을 말한 것은 도의 비은이고, 제3의 대절에 천도와 인도를 말한 것은 도를 체득한 사람이고, 제4의 대절에 한 편의 요점을 말한 것

---

章章句曰此篇言聖人天道之極致，至此而無以加矣。故自二十一章至三十二章共爲第三大節，而目之以天道人道。

21)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圖> 3쪽 ; 末章章句曰舉一篇之要而約言之。故以末一章獨爲第四大節，而目之以一篇之要，序文所謂支分節解者然也。

22)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總說> 6쪽 ; 支分節解，謂一書分爲四大節，又分爲三十三章，一章又分爲幾段。脈絡貫通，謂篇端至篇終章，章首至章末，文義皆相屬，詳略巨細亦當如此推之。

은 도의 요점이다. 33장 중에 어느 한 글자나 어느 한 구절도 도를 말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도는 바로 이 편의 제목인 것이다. 성은 또 도의 진실무망(眞實無妄)한 것이고 도 밖에는 다시금 별도의 성이 없으니, 성이 한 편의 핵심이라는 것을 더욱 더 믿을 수 있다.<sup>23)</sup>

네 개의 대절에는 도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 있으며 『중용』 후반부의 핵심 개념인 ‘성(誠)’ 또한 도의 진실무망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남당은, 특히 도의 ‘불가리성(不可離性)’이야말로 『중용』 전체의 결론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용』을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하면 ‘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중화를 말한 것은 이것은 도가 자기에게 있어 떠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며, 중간에 비움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도가 사물에 있음이 지극히 광대하여 떠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며, 마지막에 천도, 인도를 말한 것은 사람이 도를 떠날 수 없는 것에 이 두 단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책 전체에서 하학공부를 말한 것은 모두 두 도에서 떠나지 않음을 구하는 것이다.<sup>24)</sup>

남당은 『중용』의 구문을 해석할 때에 한 편의 강령, 한 대절의 강령, 한 장의 강령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sup>25)</sup>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라는 구절은 바로 『중용』 전편강령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第 三十三章 36쪽 ; 第一大節言中庸者, 道之中庸也, 第二大節言費隱者, 道之費隱也, 第三大節言天道人道者, 體道之人也, 第四大節言一篇之要者, 道之要也. 三十三章無一字一句不說道, 道乃此篇之題目也. 誠又是此道之真實無妄者, 而道外更別無誠, 則誠之爲一篇之樞紐益信矣.

24)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總說> 5쪽 ; 中庸一篇, 有可以一言而蔽之曰;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始言中和, 是言道之在已而不可離, 中言費隱, 是言道之在事物者至廣而不可離, 終言天道人道, 是言人之不離道者有此二等也. 一篇之內, 凡言下學工夫者, 皆所以求不離道者也.

25) 최석기, 「남당 韓元震의 『中庸』 해석 방법과 그 성과」, 『한문학보』 제16집, 우 리한문학회, 2007, 222쪽.

### 3. 도(道)의 정립 : 술성(率性)

『중용』에서는 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sup>26)</sup>

이 구절에 대하여 주자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술’은 ‘따름’이요 ‘도’는 ‘길’과 같다. 사람과 사물이 각기 그 성의 자연함을 따르면 일령생활(日用生活) 하는 사이에 각기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도라는 것이다.<sup>27)</sup>

주자에 의하면, 도라는 것은 길[路(로)]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과 사물이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따라 가야 가면 저절로 정립되는 당위의 도리이다. 그렇다면 ‘본성을 따라간다.[率性(술성)]’는 것은 무엇인가?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성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술’자의 뜻을 따르고만 해석하였는데 만물의 자연적인 본성을 따른다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것이므로 이 ‘술’자에는 힘을 쓴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sup>28)</sup>

주자에 의하면 ‘술성’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본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이 힘써 노력하는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주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26) 『中庸』第一章；率性之謂道

27) 朱熹, 『中庸章句』第一章；率循也, 道猶路也. 人物各循其性之自然, 則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也.

28) 胡廣, 『中庸章句大全』第一章；朱子曰 率性, 非人率之也. 率只訓循, 循萬物自然之性之謂道, 此率字, 不是用力字.



‘본성을 따른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물은 사물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이나 사물이 각각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sup>29)</sup>

주자는 ‘술성’을 인간이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근거로 도덕규범의 원리가 정립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술성’을 수양론[공부론(工夫論)]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率’을 인위적으로 따르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근거해서 도리가 정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자는 “도란 곧 리이다”<sup>31)</sup>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성즉리(性卽理)’이기 때문에 이 도는 성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 주자는 ‘도’라는 규범원리가 외재적인 초월적 실체에 의하여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본성[理(리)]에 의하여 정립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sup>32)</sup>

남당은 이와 같은 주자의 주석을 논거로 하여 ‘술성지위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하늘이 명한 성[천명지성]’과 ‘성을 따르는 도[술성지도]’라는 것은 천리의 본연함으로 말한 것이요, ‘도를 닦는 가르침[수도지교]’이

29) 胡廣, 『中庸章句大全』第一章; 率性, 不要作工夫看. 人率循其人之性, 物率循其物之性, 此即人物各各當行道理, 故謂之道.

30) 이와 같은 관점은 다음 주석에서도 나타난다. “潛室陳氏曰, 率性不要作工夫看. 人率循其人之性, 物率循其物之性, 此即人物各各當行道理. 故謂之道.”(『中庸章句大全』第一章 小註)

31) 胡廣, 『中庸章句大全』第一章 小註; 道卽理也.

32) 이와 같은 과정은 다음 주석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蓋人知己之有性而不知其出於天, 知事之有道而不知其由於性, 知聖人之有教而不知其因吾之所固有者裁之也. (朱熹『中庸章句』第一章)

라는 것은 인사의 당연함으로 말한 것이다.<sup>33)</sup>

‘술성의 도란 천리의 본연함으로 말한 것이다.’라는 구절은 도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 그 자체에 성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즉 도는 존재의 원리인 ‘성[리]’에 근거를 두고 성립된 도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를 성과 동일하게 ‘천리본연’으로 규정하여, ‘인사당연’으로서의 교와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를 ‘당위’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주자학의 일반론<sup>34)</sup>과 구별되는 남당의 독특한 견해이다.

#### 4. 도의 보편성(普遍性)과 특수성(特殊性)

남당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술성’으로서의 도(道)도 다를 수밖에 없다. 도는 성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성과 물성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물의 도에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내함(內含)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인도와 몰도의 차이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보편(普遍)과 특수(特殊)의 관계

시공간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타당한 원리는 절대적인 보편성을 갖

33)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第一章 10쪽 ; 天命之性, 率性之道, 以天理本然者而言, 修道之教, 而人事當然者而言.

34) 胡廣, 『中庸章句大全』 第一章 小註 : 人率循其人之性, 物率循其物之性, 此即人物各各當行道理. 故謂之道

는다. 반면에 특수성이란 상대적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성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리일(理一)과 분수(分殊)의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남당의 견해는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이 일원(一原)이 되면 성(性)은 분수(分殊)가 되며, 성이 일원이 되면 도가 분수가 되며, 도가 일원이 되면 교가 분수가 된다. 만물의 리는 똑같이 하늘에서 나왔으니 하늘이 일원이 되는 까닭이며, 성이 물에 품부된 것은 각기 같지 않으니 성이 분수가 되는 까닭이다. 미발에 갖추어진 성은 혼연전체(渾然全體)이니 성이 일원이 되는 까닭이며, 만사에 흠어진 도는 조목이 나뉘고 파가 구분되니 도가 분수가 되는 까닭이다. 도의 당연한 것은 그러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도가 일원이 되는 까닭이며, 교를 닦고 행하는 것은 일을 따라 각기 이루어지니 교가 분수가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성, 도, 교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자연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른바 분수 또한 일원의 소재가 아님이 없다.<sup>35)</sup>

‘천’과 ‘성’을 대비시키면 ‘천’은 ‘성의 근원’이므로 천은 ‘보편’이 되고 성은 ‘특수’가 된다. 또 ‘성’과 ‘도’를 대비시키면 ‘성’은 ‘도(道)’보다 상위 개념이므로 성은 ‘보편’이 되고 도는 ‘특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도’와 ‘교’를 대비시키면 역시 도는 ‘보편’이 되고 교는 ‘특수’가 된다. 만물(萬物)이 보편성을 갖는 이유는 모두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물에 부여된 성은 각각 다르다. 성이 보편적인 것이 되면 만사에 흠어진 도는 각각 다른 특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특수성 속에는 보편

35)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第一章 11쪽 ; 天爲一原, 而性爲分殊; 性爲一原, 而道爲分殊; 道爲一原, 而教爲分殊. 萬物之理, 同出於天, 則天之所以爲一原; 而性之所賦物各不同, 則性之所以爲分殊也. 性之具於未發者, 渾然全體, 則性之所以爲一原; 而道之散於萬事者, 條分派別, 則道之所以爲分殊也. 道之當然者, 無處不然, 則道之所以爲一原; 而教之修爲者, 隨事各致, 則教之所以爲分殊也. 然性也道也教也, 莫非天理之自然, 則所謂分殊, 又莫非其一原之所在矣.

이 내재해 있다. 보편성 속에 특수성이 내재해 있고,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내재해 있다. 남당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역(周易)』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계지자선(繼之者善), 성지자성(成之者性)”과 『중용』의 “술성지위도(率性之謂道)”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니(仲尼)와 자사(子思)가 말한 ‘도(道)’자는 비록 같은 것이지만 나아가 말한 바는 또한 같지 않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의 도(道)’는 음(陰)과 양(陽)을 아울러 말하니 ‘통체태극(統體太極)’이라고 해야 하지만 ‘술성(率性)’의 도(道)는 사사물물이 각기 갖춘 도(道)이니 ‘각구태극(各具太極)’이라고 해야 한다. 대개 『역(易)』에 나아가 논하는 경우, ‘일음일양(一陰一陽)의 도’를 ‘계선(繼善)·‘성성(成性)’에 대비하여 말한다면 ‘일음일양(一陰一陽)’의 도(道)는 ‘통체(統體)’이며, ‘계선(繼善)·‘성성(成性)’의 리가 음·양에 분속된 것이 ‘각구’이다. 또한 ‘계선’·‘성성’ 자체를 서로 대비시켜 말하면, ‘계선’은 천도의 유행에 속하여 사람과 물에서 리가 아직 치우침이 없으니 또한 이것은 ‘각구’ 중의 ‘통체’가 되며 ‘성성’은 인물이 품수한 것에 속하여 사람이 되고 물이 되는 리가 이미 정해졌으니 또한 이것은 ‘각구’ 중의 ‘각구’가 되는 것이다. 이 장에 나아가 논할 경우, ‘천명’·‘술성’을 직접 대비하여 말하면 ‘천명’의 성은 만리를 혼연하게 갖춘 것이니 ‘통체’이며, ‘술성’의 도가 일에 따라 드러나 보이는 것이 ‘각구’이다. 또한 ‘천명’·‘술성’을 횡적으로 대비하여 말하면, 정하면 성의 체가 갖추어지고 동하면 도의 작용이 운행되니 또한 ‘각구’이지만, 일리가 관통되어 내외가 없고 선후가 없는 것은 바로 ‘통체’이다. 또한 『역』을 이 장과 합해서 논한다면 ‘천명’의 성은 ‘성지자성’이요, ‘술성지도’는 ‘계지자선’이며, ‘불편부의 무과불급’의 중은 곧 ‘일음일양의 도’이다. 이와 같이 추론한 뒤에 ‘통체’·‘각구’의 뜻이 비로소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sup>36)</sup>

‘중니(仲尼)의 도(道)’란 『주역』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이며, ‘자사(子思)의 道’는 『중용』의 ‘술성지위도’이다. ‘일음일양지위도’와 ‘술성지위도’는 똑같이 ‘도’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주역』의 ‘일음일양지위도’는 ‘통체태극(統體太極)’으로서 우주의 보편적 운행 법칙인 천도를 말함에 반하여 『중용』의 ‘술성지위도’는 사사물물의 개별적인 법칙으로서 ‘각구태극(各具太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체태극’은 ‘보편성’을, ‘각구태극’은 ‘특수성’을 의미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음일양지위도’와 ‘계지자선야(繼之者善也), 성지자성야(成之者性也)’를 상대하여 말한다면 ‘일음일양의 도’는 보편적인 것[統體]이 되고 ‘계지자선’과 ‘성지자성’ 특수한 것[各具]이 된다. ‘계지자선’과 ‘성지자성’을 서로 대비하여 말한다면, ‘계지자선’은 천도로서 특수함 속의 보편적인 것[각구중통체(各具中統體)]이 되며, ‘성지자성’은 인간과 사물 품수한 것으로서 특수함 속의 특수한 것[각구중각구(各具中各具)]이 된다. 『중용』에서 ‘천명’과 ‘술성’을 대비하면 ‘天命’은 보편적[통체(統體)]이며 ‘술성(率性)’은 특수한 것[각구(各具)]이 된다. 그런데 『주역』 「계사(繫辭)」 5장과 『중용』 「수장」을 합하여 논한다면 ‘천명의 성’은 ‘성지자성’이기 때문에 ‘각구중각구(各具中各具)’가 되고, ‘술성지도’는 ‘계지자선’

36)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第一章 小註 42쪽 ; 仲尼子思所言道字, 雖是一物事, 而所就而言則亦自不同. 一陰一陽之道, 兼陰陽而言, 謂之統體太極可也; 率性之道, 是事事物物各具是道也, 謂之各具太極可也. 蓋就易而論之, 以一陰一陽之道, 對繼善成性而言, 則一陰一陽之道是統體也, 繼善成性之理, 分屬陰陽者, 是各具也. 又以繼善成性自相對言, 則繼善屬天道流行, 而於人於物, 理未有偏, 則又是各具中之爲統體者也; 成性屬人物稟受而爲人爲物理已有定, 則又是各具中之爲各具者也. 就此章而論之, 以天命率性直對說, 則天命之性, 萬理渾具者, 是統體也, 率性之道, 隨事著見者, 是各具也. 又以天命率性橫對說, 則靜而性之體具, 動而道之用行者, 又是各具, 而一理貫通, 無內外, 無先後者, 又是統體也. 又以易與此章合而論之, 則天命之性, 即成之者性也, 率性之道, 即繼之者善也, 不偏不倚, 無過不及之中, 即一陰一陽之道也. 如是推之然後, 統體·各具之義方見其盡矣.

이기 때문에 ‘각구중통체(各具中統體)’가 된다. 이와 같이, ‘성’과 ‘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것이다.

## 2) 인도(人道)와 물도(物道)

‘천명’의 성’이 ‘각구’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정립된 도 또한 특수성을 갖는다는 남당의 인식은 『중용』 제12장의 ‘연비어약(鳶飛魚躍)’절에 대한 해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본성은 곧 ‘하늘이 명한 본성[천명 지성]’이다. 솔개는 반드시 하늘을 날아오르나 연못에서 뛰어놀 수 없고, 물고기는 반드시 연못에서 뛰어놀지만 하늘을 날 수 없으니 ‘성을 따르는 도[솔성지도]’이다. 이와 같다면 만물의 성과 도가 다르나, 천명·솔성의 본연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연어 비약’의 성과 도가 기질이지 본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사(子思)가 어째서 이 두 가지를 들어 도체(道體)의 오묘함을 밝혔겠는가. 대개 만물은 모두 본연의 성과 본연의 도를 가지고 있어 나뉘를 따라 발현하니, 솔개와 물고기가 날고 뛰노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솔개에게 잘 날고 잘 날지 못함과 물고기에게 잘 뛰놀고 잘 뛰놀지 못함이 있는 것은 바로 이른바 기질지성이다. 만약 솔개와 물고기가 날고 뛰노는 것을 기질지성이지 본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성과 도의 본연을 물은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얻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발현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합당한 말 이겠는가.<sup>37)</sup>

37)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第十二章 22~23쪽 ; 鳶飛魚躍之性, 即天命之性. 鳶則必戾乎天, 而不可以躍淵; 魚則必躍乎淵 而不可以戾天, 率性之道也. 此則萬物性道之不同, 而不害其爲天命率性之本然也. 若以鳶魚飛躍之性道爲氣質, 而非本然, 則子思何以舉此二物以明道體之妙乎? 蓋萬物皆有本然之性道而隨分發見, 鳶魚之飛躍是也. 若鳶之有善飛有不善飛, 魚之有善躍有不善躍者, 乃所謂氣質之性也. 若以鳶魚之飛躍爲氣質之性, 而非本然者, 則是性道之本然, 物不得

솔개가 하늘에 날라 오르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 노는 본성은 ‘하늘이 명한 성’, 곧 본연지성이다. 그러므로 솔개는 하늘을 날지만 연못에서는 뛰어 놀 수 없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 놀지만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다. 즉 솔개는 하늘에서 날 수는 있지만 연못에서 뛰어놀 수는 없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 놀 수는 있지만 하늘에 날아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솔개와 물고기의 본연지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人]·개[犬]·소[牛]·말[馬]·솔개[鷹]·물고기[魚]’ 등 각 사물들의 본연지성은 다르다는 것이 남당의 성론의 특징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리는 본래 하나인데 형기를 초월하여 말하는 것이 있고 기질을 인하여 이름 붙인 것이 있고 기질과 섞어서 말하는 것이 있다. 형기를 초월하여 말하면 태극이 이것이니 만물의 이치가 동일하다. 기질을 인하여 이름 부치면 건순오상의 이름이 이것이니 인·물이 동일하지 않다. 기질과 섞어서 말하면 선악의 성이 이것이니 모든 사람, 모든 물이 동일하지 않다.<sup>38)</sup>

이 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당이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할 때의 성이란 그 ‘인기질(因氣質)’한 성인데, 이것은 기질지성이 아니고 본연지성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남당의 주장은 주자학의 일반론과 상치된다. 주자학은 리[同(동)]/기[異(이)], 본연지성[同(동)]/기질지성[異(이)]의 이분법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이른바 성삼층설이라고 불리는 남당의 성론은 초형기[同(동)]·인

與，而雖曰得之，亦無所發見矣。豈理也哉？

- 38) 韓元震, 『南塘集』 卷11, 「擬答李公舉」: 理本一也, 而有以超形氣而言者, 有以因氣質而名者, 有以雜氣質以言者. 超形氣而言, 則太極之稱是也, 而萬物之理同也. 因氣質而名, 則健順五常之名是也, 而人物之性不同矣. 雜氣質而言, 則善惡之性是也, 而人人物物不同矣.

기질[異而同(이이동)]·잡기질[異(이)]의 삼분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기질에 인하기 때문에 인간과 물(物)의 본성은 다르지만 기질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종 내부의 본성은 동일하다.”라는 주장은 주자학의 체계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이론이다<sup>39)</sup>.

이와 같은 그의 성론에서부터 본성에 의거하여 정립된 도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솔개는 하늘을 나는 것이 솔개의 도이며,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 노는 것이 물고기의 도이다. 그는 “성과 도는 둘로 나눌 수 없으니, 도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명과 성은 둘로 나눌 수 없으니, 성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한 천명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40)</sup>라고 하여 사물들의 ‘명(命)’, ‘성(性)’, ‘도(道)’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한다.<sup>41)</sup> 그러므로 인도(人道)와 물도(物道)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같은 남당학설의 특성은 주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대비해 볼 때에 한층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모두 같다. 사람의 본성을 따르면 사람의 도가 되고 소와 말의 본성을 따르면 소와 말의 도가 된다. 만약 그本性을 따르지 않고 말을 발같이 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소를 달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들의 본성을 잃은 것이므로 소와 말의 도가 아니다.<sup>42)</sup>

39) 최영진, 『조선조 유학사상사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06쪽 참조

40) 韓元震, 위의 책 ; 性道不可分二, 則因道之不同, 而可以知性之不同矣. 命性不可分二, 則因性之不同, 而亦可以知天命之不同矣.

41) 남당은 命과 性の 同異 문제에 대하여 『경의기문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2) 호광, 『中庸章句大全』第一章 ; 人與物之性皆同. 循人之性, 則爲人之道, 循牛馬之性, 則爲牛馬之道. 若不循其性, 使馬耕牛馳, 則失其性, 非牛馬之道矣.



주자는 ‘사람[人]·소[牛]·말[馬]의 본성은 동일한데 그 도는 각각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인도(人道)·우도(牛道)·마도(馬道)가 다르게 되는가?’라는 이유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술성지위도’라는 명제가 ‘도가 성에 근거하여 정립됨’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주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남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각 품부된 바의 리를 얻어, 각각 그 성의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각각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세 개의 ‘각’자가 하나로 관통된다. 인과 물이 얻은 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바의 성도 같지 않고, 따르는 바의 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는 바의 길도 같지 않으니, 인과 물의 성과 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만약에 “성은 같은데 도가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술성지도’ 일구(一句)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장구』에서 ‘각기 그 성을 따른다.’는 말은 애초에 그 성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물(物)이 없다는 뜻이니, 마땅히 『맹자』의 「생지위성」장의 주를 참고해서 봐야 한다.<sup>43)</sup>

남당은 주자의 『중용』 주석에 나오는 ‘각’자를 매우 중요시 하여, 이 ‘각’의 논리가 『중용』 첫 구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본다. 인과 물은 각각 부여받은 리가 다르므로 성이 다르고, 성이 다르므로 도도 다른 것이다. 그가 “성은 같은데 도가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술성지도’ 일구(一句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주자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같은데 그 도는 각각 다르다’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

43) 韓元震, 『經義記聞錄』 卷 第二, 「中庸」 第一章 12쪽; 各得其所賦之理, 各循其性之自然, 各有當行之路, 三‘各’字一串貫來, 人物所得之理不同, 故所循之性不同, 所循之性不同, 故所行這道不同, 人物性道之不同, 此可見矣. 若曰性同而道不同, 則‘率性之道’一句說不去, 而『章句』各循其性之說, 初無物不能盡循其性之意, 當與『孟子』「生之謂性」章註參看.

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자와 구별되는 남당 학설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본 논문은 ‘남당이 외암과의 치열한 논변을 통하여 창출한 독창적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곧 성삼층설(性三層說)이 도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남당의 도론의 특성을 고찰 한 것이다.

『중용』 1장에서 도의 개념을 ‘본성을 따르는 것[술성(率性)]’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하여 주자가 ‘성을 따르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道(도)]이 정립된다.’라고 주석한 것에 의거한다면, 성리학에서 도의 정립 근거는 바로 성(性)이 된다. 그러므로 남당의 독창적인 성론에서부터 도출된 도론은 주자의 도론과 구별되는 내용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하여, 먼저 남당이 『중용』의 구성 체계에 있어 도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남당은 『중용』을 4대절로 분절한 다음에 『중용』 33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은 바로 ‘도(道)’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도의 ‘불가리성(不可離性)’이야말로 『중용』 전체의 결론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당은 『중용』의 구문을 해석할 때에 한 편의 강령, 한 대절의 강령, 한 장의 강령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sup>44)</sup>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라는 구절은 바로 『중용』 전편 강령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최석기, 「남당 韓元震의 『中庸』 해석 방법과 그 성과」, 『한문학보』 제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222쪽.

그 다음에 남당이 보편과 특수 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성과 물성에 대한 남당의 인식이 어떻게 인도와 물도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남당은 인간과 사물의 ‘기질을 인한[因氣質(인기질)] 본연지성’은 다르기 때문에 인도와 물도가 다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인·우·마의 본성은 동일한데 인도·우도·마도는 각각 다르다’라는 주자의 주장과 구별되는 남당의 독창적인 이론이다. 주자의 주장이 ‘어떻게 동일한 본성에서부터 각각 다른 도가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남당의 도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의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당 경전 해석의 의의에 대하여 ‘주자의 여러 학설을 변정해 정설을 확정하고 이에 준거해 여러 이설을 분변함으로써 주자의 경학을 명증하게 정리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sup>45)</sup>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피상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45) 최석기, 「남당 韓元震의 『中庸』 해석 방법과 그 성과」, 『한문학보』 제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247쪽.

□ 참고문헌 □

『中庸』

朱熹, 『中庸章句』

胡廣, 『中庸章句大全』

韓元震, 『經義記聞錄』

『南塘集』

전인식, 「이간과 한원진의 미발·오상논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최석기, 「남당 韓元震의 『中庸』해석 방법과 그 성과」, 『한문학보』 제16집, 우리한문학회, 2007.

최영진, 『조선조 유학사상사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홍정근, 「호락논쟁에 관한 임성주의 비판적 지양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 A Study on the Tao-theory(道論) of Namdang Hanwonjin(南塘 韓元震)

- Focussing on *Gyeongugimullok*(經義聞錄), “the Doctrin of  
the Mean(中庸)” -

Dan, Yunjin(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Tao-Theory(道論) Namdang Hanwonjin(南塘 韓元震). “The theory that human and animal are different(人物性異論) the original theory created by Namdang, how is the theory that there are three layers(性三層說) reflected in Tao-Theory?” Based on this problem,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o-Theory of Namdang. In the first chapter of *the Doctrin of the Mean*(中庸) the idea defines the concept of Tao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is, the 性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ules.’ If you ’re referring to something, the basis of moral principles in Neo-Confucianism is the Nature(性). Thus, the original Tao-Theory derived from the original Nature-Theory(性論) of Namdang can not be distinguished from the distinguishing material of Chu-Hsi. For this task, the Namdang was first examined to assess how the magnitude of the prefecture was evaluated in the framework of *the Doctrin of the Mean*. Namdang argues that one thread through the whole of the Doctrin of the Mean is a Tao. Next, we examined how the Namdang recogn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al and special relationships. And the perception of the nature of human(人性) and the nature of things(物性)’ perception of Namdang was analyzed as a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human(人道) and the cause of things(物道). He argues that the duty of human and the cause of things are different because they differ from ’ the nature of human on the cause of tendency’. Here we can find the traits of a Namdang theory that distinguishes it from Chu-Hsi(朱熹). The Chu-Hsi’s argument does not solve the problem, ‘How can we deduce from the same nature? In light of the fact,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Namdang’s

the Tao-Theory should be assessed.

**Key words** : Tao(道), Solseong(率性, adherence to nature, Follow the nature),  
*The Doctrin of the Mean*(中庸), Universal(普遍), Special(特殊),  
Namdang(南塘)

■ 논문접수일: 2017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6월 14일, 게재 확정일: 6월 15일